ようなから、シャンママ 互上1246名

A CONTRACTOR OF THE STATE OF TH

청주시도시재생소식지 제8호

N. S. C. S.

The second of th

HACE THE RESIDENCE OF THE PARTY OF THE PARTY

THE RESERVE OF THE PARTY OF THE

The state of the s

9

표지사진 :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청주시 도시재생,

Market Barrier

Report to the second se

大学され、対社적 5人124KB



사람이 있습니다.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

세계수 성수, 우리가 있습니다.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Contents



도시재생은 청주의 르네상스

- 사람 살기 좋은 원도심 주거복지의 실현
- 공동체 회복을 통한 '함께 웃는 청주' 완성

청주·청원의 통합을 이끌었던 한범덕 청주시장이 '도시재생'을 청주시정의 핵심 화두로 시정을 이끌고 있다. 청주시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을 전략부서로 전진 배치한 한범덕 청주시장의 '사람과 도시'에 대한 생각을 들어 봤다. <편집자 주>



청주시장 **한 범 덕**

"문재인 정부의 임기내 50조원 규모의 투자전략도 중요하지만, 천년 고도 청주에서의 도시재생은 단순한 갱생, 재건 (Regeneration)을 넘어서는 르네상스 차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안전과 도시재생을 최우선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한범덕 청주 시장의 시정 철학은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와 맞물려 있다. 천년 도시에 걸맞는 역사적 도시 정체성을 기반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 축식의 시대조류에 대한 대응에서 벗어나 도시의 문화혁신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최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옛 청주연초제조창에서 도시 재생에 대한 MOU를 체결한 것은 우리 시가 도시재생에서 그만큼 중요한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또 '청주는 도시재생 뉴딜의 5가지 유형 가운데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사업 (옛 연초제조창)을 비롯해 우암동(중심시가지형), 운천·신봉동(일반근린형) 등 주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국 유일의 도시'임을 확인해 주면서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의 원도심 벨트를 구축해 새로운 청주의 자랑거리로 삼는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는

도시로서의 교육 및 체험 관광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그동안 양적 성장과 팽창에 치우쳤던 도시의 모습을 청년과 노년 등 계층이함께 어우러지는 질적 성장과 더불어 청주만의 넉넉한 인심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회복 및 주거복지의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하는 한범덕 청주시장은 '도시재생을 통한 청년과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들의 적극적인 도시재생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도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시장은 이어 '주택보급을 위한 아파트 밀집지역의 개발과 도심 외곽 개발에 집착하는 물리적 공간의 확대와 공간에 치중하는 장소성의 확장은 이제 천년고도이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도·농통합형 도시로서의 가능성에도 적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편안하면서도 쾌적한 주거복지의 실현과 인간성을 바탕으로 하는, 말 그대로 〈함께 웃는 청주〉다운 휴먼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대의 도시는 시민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안전하고, 쾌적하며 최대한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한 조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범덕 청주시장은 '전통적인 청주의 도시 정체성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 재생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한시장은 끝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이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며, 우리 동네를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겠다는 스스로의 노력'이라면서 '중앙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혁신적인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행정의 실천과 민간 기업 등 협치(거버넌스)의 모델을 통해 청주가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며 선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중앙동 도시재생, 협동조합이 뜬다

-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의 발판 마련
- 처음 만들어진 주민 스스로의 공동체



중앙동 도시재생이 협동조합의 새 옷을 차려 입었다.

소나무길을 전국적인 도시재생의 명소로 만든 중앙동 주민들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중앙동 주민들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을 출범시켰다.

「중앙동 지역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권순택 이사장을 비롯해 33명의 주민 조합원이 6,540만원의 출자금을 갖춘 첫 도시재생의 법인으로의 자격을 갖추었다.

「중앙동 지역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청주의 도시재생 역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커다란 의미를 띠고 있다.





도시재생 시민의 터전 문 열다

- 주민 거점시설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준공
- 청주 도시재생의 꿈과 실천의 중심지로 도약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전경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가 긴 공사 기간을 끝내고 마침내 개관했다.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는 청주의 선도적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 사실상 처음 마련된 주민 거점공간. 청주시는 지난 2015년 중앙공원 내 청주시민문화학교에 이어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의 창조적 활동 공간이 될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를 개관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 공동체 공간의 본격적인 운용을 예고하고 있다.

2층 규모의 새로 지어진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에는 사무공간과 더불어 공연장과 연습실, 주민 회의 공간 및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는 앞으로 도시 재생의 창조적 전략 과제의 연구·발굴과 더불어 도시 재생 및 문화예술 관련 주민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복원된 옛 청주역사 모습



개관식 장면

변화의 용트림, 옛 연초제조창의 환골탈태

- 여기 이런 것이 있었다
- 청주 구도심을 뒤흔들 역사의 현장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했던가. 쇠락을 거듭해 왔던 청주 구도심의 역사를 뒤흔들 옛 연초 제조창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힘찬 중장비들의 움직임과 더불어 새 모습의 기대와 흥분을 더하고 있다.

한 때 청주 산업의 요추였던 연초산업의 사양을 뒤로 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더불어 문화 예술 중심의 미래 중심지가 될 공사 현장을 둘러 봤다.

여기 이런 것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편집자주>







2018 1기 도시재샜대학

청주시 내덕1동 도시재생대학

"행복이 배가 되는 내덕1동"



참여주민: 고명자, 김형묵, 손광훈, 안남열, 윤봉섭, 이상원, 이종운, 한성진, 호미숙, 황성열, 황태구, 윤점순, 강효심, 이점순, 조순녀, 변정순, 지희복, 윤경화, 신순임 안승두, 오귀진, 배성삼, 김은희, 한복실, 백윤자, 천현선, 주대철, 최향숙, 김태화, 전병일, 이승주, 이미순, 양정선, 채희숙, 김정숙, 최성민, 장정진 (37명)

· **지도교수** : 손세원 · **수업조교** : 이수현

01. 마을현황

- · '2025 청주시 도시전략계획 '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순위**
- · 국가 지원 도시재생사업 없음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미수립
- · 청주시 **쇠퇴도1등급** (인구사회, 물리환경, 산업경제부문)



02, 2015년 1, 2기 도시재생대학

"2015년 우리의 선배들이 공부한 자원을 토대로 사업을 구상하려 합니다.





03. 주차별 진행과정



04. 마을자원을 활용한 주요사업 도출





05. 주요 사업



지금까지는 꿈으로만 간직했는지도 모르겠다.

참여주민: 곽덕신, 권혁만, 김기동, 김완수, 김종길, 박노일, 박정호, 박종대, 배영철, 안청언, 이옥교, 이준재, 이창식, 정남수, 최규연, 최종두 2018년 1기 청주시 도시재생대학 모충동팀 작품 지도교수 : 김학실(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도조교 : 강현욱(청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과정) 모충동 현황 STATUS OF MOCHUNG-DONG 대상지 현황도 SITE MAP 방학기간 학생수 감소 노후건물 및 공실률 증가 이해관계자의 소통 부재 청춘 지장골 프로젝트 마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시재생대학에 참 여하여 과거 지장골*의 명성을 되찾고자 한다. *지장골은 모충동에 지장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절터가 발견되기도 하여 지장사가 있던 골짜기라는 명칭에서 유래되었다. 서원대학교 관계자 및 학색, 주민, 상인 등 모충동의 주요 이해관계 자들의 소통이 부족함 방학기간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인구감소 및 매출감소현상 발생 노년 및 청년층 세대격차 심화 수업 절차 CLASS PROCEDURE 3단계, 퍼실리테이션 STEP 3, FACILITATION Step 1, 스튜디오 수업 Step 2, 마을 둘러보기 Step 3, 퍼실리테이션 3-1 퍼실리테이션 개요 3-3 사업도출하기 A 팀 사업 인 B 팀 사업 안 • 수업 초기 1~2회 진행 • 이해당사자 파악 • 마을 문제점 파악 • 다양한 당사자 참여 아이디어 도출 ② 아이디어 채택 ③ 최종 아이디어 발표 3단계의 수업진행을 통해 마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1단계: 지도교수 및 지도조교의 진행 아래 도시재생의 이혜 및 마음의 문제점 파악 간단계: 문제점을 직접 현지조사 하며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인지 3단계: 파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함 3-2 마을키워드 찾기 및 비전설정 양 1단계, 스튜디오 수업 STEP 1, STUDIO LESSONS ^{이 우선인 6} 활기찬 유 주차장 산설, 주차장 배수 불받이 안내한 설치, CCTV. ✓ 먹거리 ✓ 광고 및 홍보 ✓ 이베트 청춘 지장골 일방통행, 보도블릭 개선, 하수관 골돔법송시설, 전선간소화, 조염 구분 우리병네 주거지지원성 일반근원성 중심시가지성 경제기반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특화된 역가리, 포토존, 간편점비 이벤트 개최, 포스타제작, 진압안내만 설 최 학생 쇠퇴한 원도심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공원 조형용, 벤치설치, 하단 및 수목식재, 운 경기구, 공공화장설, 자전거 거치대 ✓ 지역협력 ✓ 방범 ✓ 쓰레기 관리 전봇대 열 분리수거함, CCTV, 야간 발감 쓰레기통, 학명 봉사시간 언제, 주민의식 협양 권장면적 5만m 쓰레기 5~10@m 10~15만m 50만㎡ 휴먼웨어 공공 장소 도시재생에 이해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유형 중 ✓ 안전 ✓ 교통개선 ✓ 곡공장소 교통 수단 자전거 대여,인내판 설치 마윤비스 산설 사업특성을 고려한 재생방향을 설정하였다. 지구대 순찰 강화, 주민의 자말적인 방병 주민 공동 치안함 설치, 방범초소 설치 3-4 유형별 사업 우선순위 도출 전신주 주변 환경개선 (얼배용초함, 화단조성 3-22번지 사거리 CCTV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 1순위: 쓰레기 관리 ■ 1순위 : 광고 및 홍보 ■ 1순위: 교통개선 ■ 2순위: 지역협력 ■2순위: 먹거리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유형화 하였다. (조명설치를 통한 보행안전) ■ 3순위: 공공장소 마을의 문제점을 환경개선, 쓰레기 문제, 형거, 도로개선, 주차장, 기타의건 6가지로 유형화하였으며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유형은 주차장과 환경개선으로 나타났음 《위생적인 음식점 확충》 ■ 3순위: 이벤트 ■3순위 : 방범

2단계, 마을둘러보기 STEP 2, SITE ANALISYS

건축물 현회

환경 현황



부정형 필지에 건축된 건축물 로 주변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 어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 며 차량통행이 불편하다.

건축물 이면부와 접한 건축물의 접근성 이 저하되 이 시아님 건축물 매입 후 휴식공간, 공연, 주민화 합공간, 소공원 등 활용방안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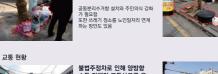
가로등의 노후화와 비좁은 보 도, 적치된 옥외광고물 등 총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곳곳에 방치된 공·폐가건물 로 인해 청소년의 비행 장소

또는 우범지역으로 사용될 수

최종 구상도 MASTERPLAN

보행자도로의 개선을 통해 보행자 쾌 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함 가로등 개선을 통해 가로경관 및 보행 자의 안전을 강화해야함



도로의 교차점 부근에서 쓰레 기가 집중적으로 쌓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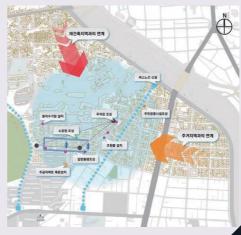
불법주정차로 인해 양방향 소통 저해와 교통사고를 유 발할 수 있다.

주차단속강화와 주차장 조성 또는 일방통행으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함



청남로에서 서원남로(서원대 후문)으로 진입하는 안내표지 판이 없다.

안내 표지판 부재로 인해 방문객에 인 지가 부족하며 상권 활성화에 저해 요 인으로 생각함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꿈을 꿈만으로 남아있게 할 순 없다.

청주 수곡1동 도儿재생대학 *"한마음 한뜻"*

■ 지도교수 : 전원식 ■ 수업조교 : 이슬비

■팀원: 고선준, 김희수, 박종태, 백준성, 윤임화, 이민호, 이종기, 이학봉, 최화진, 진형근, 남상식, 임화철, 오흥진, 강산길, 양승기, 너계숙, 박동규, 조규철, 백도영, 유인수, 장태영

■ 수곡1동 위치

-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1동
 - 면적 : 1.41 km²
 - 인구 : 15,600명 (2017년 12월 31일 기준)
 - 세대 : 7,115가구 (2017년 12월 31일 기준)

"주개지역이며, 개주인구 중 장노년층 다수"



■ 살기 좋은 동네 수곡동







청주수곡2재건축추진위 "해산동의 철회 인정하라"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갈등, 주민단절이 가속화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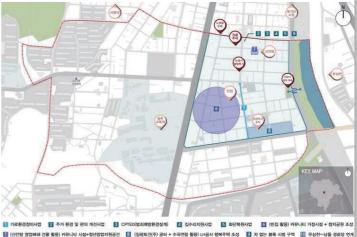
이번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서로의 의견, 서운한 점, 오해, 사과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도시대생사업을 떠나서 주민이 화합해야 한다." "이제 찬.반 나누지 말자." "주민추진위원회를 찬.반 섞여서 조직하자."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계속 강의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좋아졌다." "모든 것이 풀리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시 뭉쳐서 잘 해보자."

■ 수곡1동 지역자산 및 문제점



■ 마스터 플래



■ 수곡1동 사업 도출

예) 조치원 중심가로 환경개선사업



2 주개 환경 및 편의 개선사업

주개환경 개선 ▶ 노후 주개지 점비 및 소방도로 확보





임광토건화 공단 + 수곡연리 활용

CCTV, 조명, 안심벨, 피킴이집 등 조성

3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4 집수리지원사업

집수리 합동조합을 조성하여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 암파리 창출 효과 + 노후 주개지 개선 제소득층, 보호아동, 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구를 우선 선정** 법적으로 TI보당 10~20% TI불



5 화단복원사업

9 차 없는 블록 시범 구역







있게 됐고,

비로소

마을을,

그리고

이웃들을

돌아볼수

노후주택 + 빈집 활용 ▶ 주민공동 이용되실 조성



7 (신안탕 영업폐쇄 건물 활용) 귀뮤니티 시설+청년창업지원공간 시안탕 영업에서 건물 활용 개뮤LIEI 시설 + 공영주차장 + 광장 +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인근 학생들과 인계 ▶ 동아리, 연습실 공간으로 지원 ▶ 무료 제공(조건 : 한 달에 한 번 광장에서 공연하기)



(임광토건㈜공터+수곡연립 활용) LH공사 행복주택 조성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청춘이 꿈꾸는 가거지지(可居之地)

- 청년 도시재생 활동가 박준국 씨
- "청년이 나서야 도시재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청춘이 꿈꾸는 가거지지(可居之地: 머물러 살만 하거나 살기 좋은 땅)는 어떤 모습일까.

불쑥 도시재생의 문을 두드린 청년 활동가 박준국 씨(32)의 요즘 하루 하루는 눈코 뜰 새 없다. 영운동으로, 또 내덕동으로. 그리고 미원면에 이르기 까지 준국 씨가 둘러 봐야 할 동네는 너무 많다. 같은 일을 함께 하는 아내와 아직 갓난아기의 모습이 채 가시지 않은 아기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숨가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준국 씨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질 줄 모른다.

"도시재생이야말로 지역과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 했지만, 아무도 먼저 불러주지 않았죠."

어느 날 문득 혼자 도시재생대학 참여 신청서를 들고 나타난 준국 씨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 도시재생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려 했으나 아직 그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아는 청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준국 씨는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일찌감치 포부를 키워 온 준국 씨는 국내 대학을 마다하고 중국 유학길을 택해 중국의 침술 등을 배웠다. 사람 생명의 소중함과 그 근간을 이루는 건강을 베풀고 나누며 실천하는 길을 택한 준국 씨는 개개인의 질환과 치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마을 단위의 사회적 환경이라는 생각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도 빈집이 늘어나고, 청년 세대는 실종됐으며 당연하게도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공동체 의식도 사라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됐다'면서 '이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도시 재생이고, 또 그 길은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힘주어 말한다.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서두르고 있는 준국 씨는 '우선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실버세대와 청년세대의 단절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노인의 경륜과 청년의 패기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사람과 사람이 편안하게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가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준국 씨의 열정에 사상 유례가 없었다는 폭염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듯하다.

박준국 씨는 한결같이 가거지지(可居之地)의 꿈을 키우고 있다.



2018년 2기 청주시 도시재생대학 수기사의 모조[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지원서 양식 :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www.curs.or.kr) 홈페이지

· 방문 : 청주시민문화학교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5번길 35)

· 이메일: curs2015@naver.com

문 의 처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홍보팀 T. 043-225-3307

공고기간 2018. 9. 3. ~ 2018. 9. 21.

모집기간 2018. 9. 17. ~ 2018. 9. 21.

설명회 2018. 9. 13. 15:00,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

모집대상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에 관심있는 주민,

학생, 단체 등

교육기간 2018. 10. ~ 2018. 11. / 주1회 2시간, 8주 과정

(수업시간 및 장소는 팀 구성에따라 변동가능)

모집인원 개인 또는 팀(10인 이상 20인 이내) 단위 신청

모두 가능

개강일정 2018. 10. 중 (향후 일정 개별 통보)

도시재생대학이란?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기존의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이 아닌 원도심 쇠퇴, 지역 불균형 개발, 공동체 붕괴 등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찾아내는 "과정을 학습하는 교육" 프로그램



大場合品, 社立적 5F124F8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